



산업보건 주요뉴스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보고서 발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폭발 사고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한 「화학물질의 물리적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4권의 보고서는 지난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작년 울산 및 경기도 등에서 발생한 폐수, 농약 및 페인트 원료물질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분석했다. 폐수, 농약 및 페인트 원료 등 사고원인물질의 연소특성 및 분진폭발 가능성 평가, 인화점·발화점 분석, 동종 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제도적 개선점 등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 총 55건의 「화학물질의 물리적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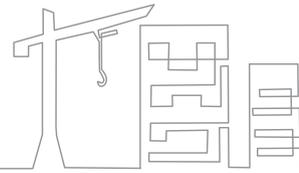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흥기로 돌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12~'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임 유형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앞으로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②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용 중 안전장치의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제 후 작업 시 흥기로 돌변할 수 있다.”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지난 5월 14일(금) 박학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이하, 'TF)」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그간 기관별 조치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마련하였다.

첫째,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사법조치 할 것이다. 둘째,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셋째,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조속히 제작·배포하고, 넷째, 해양수산부는 국내 컨테이너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는 한편,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항만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이번 발표된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TF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OK

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 지역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OK”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